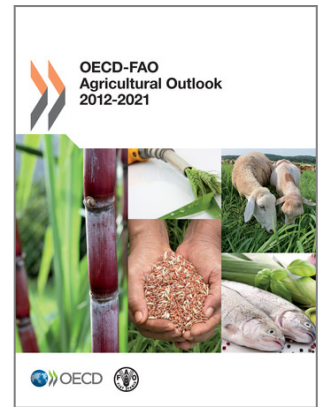


OECD *Multilingual Summaries*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2  
Summary in Korean



Read the full book on:  
[10.1787/agr\\_outlook-2012-en](http://10.1787/agr_outlook-2012-en)

---

## OECD-FAO 2012 년 농업전망

### 국어 개요

- 농업전망 보고서 제 18 호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8 번째로 공동 준비한 보고서이다.
- 본고에서는 OECD 와 FAO 의 농산물과 정책, 각국에 대한 전문적 견해와 회원국과의 공동작업에서 입수한 자료를 한 곳에 모은다. 아울러 바이오연료와 곡물, 유지종자, 설탕, 육류, 어류, 유제품에 대한 2012-2021 년의 세계시장 추이를 보여주며 최근 동향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상품 시장이 안고 있는 주요 사안과 불확실 요인을 다룬다.
- OECD 의 AGLINK 와 FAO 의 COSIMO 모형에 기초하여 공동 개발한 모형을 사용하므로 보다 일관된 농업전망이 가능하다. 금번 보고서는 농업생산성 증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특별 부록을 담고 있다.

## 전망 요약

---

최근 가격은 정점을 벗어났지만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은 개도국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

최근 OECD-FAO 농업전망 보고서들은 비싸고 변동성이 큰 농산물 가격에 주목하였다. 농산물 가격은 시장이 반응하면 내려가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고 일부 투입 비용이 늘면서 고가대에 머물게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예상대로 가격은 완화되기 시작했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식품 소매가는 상승률이 2008 년의 최고치보다 상당히 줄었으며 인플레이션 기여도는 적당한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많은 개도국에서 식품 가격 상승률은 계속 높은 편이며 조사대상국의 대다수 경우에 여전히 전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이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

비축량을 적게 유지하는 한 기상과 관계된 수확 변동이 주요 위협요인이 되어 가격 변동성이 계속 문제로 남는다. 작물 생산의 회복과 함께 비축량이 다소 늘면서 2012 년에 시장은 덜 동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농업이 당면한 주요 문제는 식량과 사료, 연료, 섬유에 대해 늘어나는 수요에 맞서 어떻게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냐는 것이다.

---

고가대 가격이 지속될 전망

---

향후 10 년간 본고에서 다뤄진 상품들의 명목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현재에 비해 줄어들 것이지만 지난 10 년에 비하면 평균 10%~39%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요 기본가정

---

세계 농업은 점점 에너지 시장과 연결돼 있다. 거시경제 가정에 포함되는 유가 전망치는 작년에 사용한 것보다 약 20 달러 높은 수준인데 전망기간에 배럴당 110 달러에서 140 달러 사이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유가 상승이 농산물 가격 상승을 전망하게 만드는 주원인인데 석유와 관련된 생산비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 바이오 연료와 이들 생산에 쓰이는 농업 원료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때문이다.

---

가격이 상승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원 제약과 비용 증대가 생산 증가에 제한을 가한다

---

가격이 높은데도 생산 증가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의 농업 생산은 연간 증가율이 2%를 웃돌았지만 향후 십 년간은 1.7%로 둔화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자원 제약과 환경 압력, 그리고 일부 투입비용의 증대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급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성 성장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

개도국이 계속 시장 개척을 주도

---

농업 용도의 토지 증대와 생산성 향상에 큰 잠재력을 가진 개도국들은 2021 년까지 전세계 생산량 증가의 주요 공급처가 될 것이다. 개도국들은 연간 생산증가율이 선진국의 1.2%를 웃돈 1.9% 수준일 것으로 내다본다. 2012 년이면 지구에 사는 인구가 6 억 8 천명 추가될 것이며 아프리카와 인도의 인구 증가율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 증대와 도시화는 가공식품과 지방, 동물성 단백질 등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식생활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고가의 육류와 유제품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가축사료용 곡물과 유지종자에 대한 간접적 수요를 견인하게 될 것이다.

---

## 늘어나는 세계 농산물 교역에서 신흥경제국들은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

늘어나는 세계 농산물 교역에서 신흥경제국들은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국가들은 농업생산력 증진에 상당한 투자를 했던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이다. 2012년에는 쌀, 유지종자, 채소와 야자유, 단백질 분말, 설탕, 우유, 가금육, 어류와 어육제품 등의 수출품목에서 개도국들이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

## 상품 관련 주요 사항

---

---

### 바이오연료 생산과 교역 확대

---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의 세계 생산은 2021년까지 거의 2 배로 늘고 특히 브라질과 미국, 유럽연합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본다. 바이오연료는 주로 농업 원료에 의존하므로 바이오연료로 사용되는 사탕수수과 식물성 기름, 곡물의 비중이 2021년에는 전세계 생산량의 34%, 16%, 14%로 각각 늘 것이라고 전망한다.

---

### 미국과 브라질 양국 간의 에탄올 교역은 증대할 전망이다

---

정부 요구에 맞추어 미국과 브라질 간 바이오연료 교역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보고서는 고급 바이오연료 의무화에 따른 내수를 충족하기 위해 미국은 주로 브라질에서 사탕수수 에탄올을 수입하고 브라질은 대규모의 혼합연료 차량으로 말미암은 수요에 맞서기 위해 저렴한 옥수수 에탄올을 주로 미국에서 수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미국의 저혼합 에탄올 수요는 2016년 이후로는 혼합비율 제한의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본다.

---

### 후해의 역할 확대

---

곡식은 수요 대비 재고 비율이 역사적 평균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면서 미래 가격 변동의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 2021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이 밀 수출품목의 주요 공급처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생산량의 변동이 크므로 세계 교역과 국제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아시아의 저개발국들은 쌀 수출이 늘 것으로 기대되며 아프리카의 쌀 수입은 늘어날 예정이다.

---

### 중국은 주요 유지종자 수입국

---

유지종자 생산과 수출은 기존의 선도국들이 계속 주도하지만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등 신규 수출국들이 세계 수출 성장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 수입국인 중국은 전세계 수출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브라질의 유지종자 생산은 전망기간 동안 연간 증가율이 4.9%에서 2% 미만의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

### 브라질이 세계 설탕 시장을 지배

---

중기적으로는 당료 작물에 대한 식품과 에탄올 수요가 지속되면서 설탕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이다. 생산 주기가 계속 아시아 설탕 시장의 특징을 이루면서 때때로 교역과 가격에 커다란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설탕 시장에서 브라질이 우세한 위치에 있는 만큼 브라질 사탕수수의 에탄올과 설탕 생산 간의 배분이 중요한 시장 동력으로 남는다.

---

### 개도국에서 육류 소비량은 확대

---

육류에 대한 수요 증가는 소득 증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의 경제대국과 원유생산국, 라틴아메리카에서 주로 비롯된다. 이렇게 예상된 육류 수요 증가는 가장 저렴하면서 접하기 쉬운 육류 단백질 공급원인 가금육에 의해 견인될 것이며 전망기간 말까지 가금육이 육류 분야에서 돈육을 누르고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

## 양식업이 어선어업을 능가

---

어류 생산은 가장 급성장하는 동물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이다. 전세계의 어업과 양식업 생산은 전망기간 동안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렇지만 양식업 생산은 33% 늘면서 2018년에 어선어업을 능가하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생선의 주요 공급원이 될 것이다.

---

## 개도국들은 중요한 우유 생산국으로 부상

---

선진국들은 치즈와 신선 유제품을 제외한 모든 유제품 소비가 소폭 증가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모든 유제품 소비가 2021년까지 30% 정도 늘 것으로 내다본다. 2013년에 개도국의 우유 생산량은 선진국을 능가하고 특히 중국과 인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변화를 위한 시간 - 장기 전망

---

---

### 2050년까지 생산량을 60% 늘려야 한다

---

늘어나는 식품 수요를 충족키 위해 앞으로 40년간 농업 생산량을 60% 늘려야 한다. 즉 2005/07년 수준에 비해 2050년까지 해마다 10억 톤의 곡식과 2억 톤의 육류를 추가 생산해야 함을 뜻한다.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추가 생산이 필요할 것이다.

---

### 생산량 증대는 생산성 향상의 결과여야 한다

---

전세계적으로 영역을 넓힐 여지는 한정돼 있다. 2050년까지 총경작지는 6,900만 헥타르만 늘 것으로 전망되는데 5%도 안 되는 증가율이다. 지난 50년간 그랬던 것처럼 추가 생산량은 생산성 향상이어야 한다. 생산성 향상은 자원 제약이 심해지는 여건에서 식품가격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며 또한 세계 식품 불안정을 줄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중기적으로 생산성 증대는 주로 개도국간의 생산성 격차 감소로 인해 이뤄질 수 있겠지만 특정 상황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원료로 사용되는 작물의 늘어난 생산량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된다고 전망할 수 있겠다.

---

### 지속가능성 개선이 중요

---

또 한편으로 가용 토지와 물, 해양 생태계, 어류 자원, 산림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체 농지의 25%가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농업 부문의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은 많은 국가들이 직면한 현실이다. 수많은 어류 자원들이 과잉 개발의 대상이거나 그럴 위험에 처해 있다. 점점 기상 변화와 이상기상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

---

향상된 농경 관행을 장려하고, 무역과 기술, 규제 환경을 올바르게 조성하며, 소농인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한 대응 조치를 비롯하여 연구와 교육, 확장, 인프라 등의 농업혁신체도를 강화하는 것이 본고에서 확인된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식량 손실과 낭비를 줄이는 정책도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급 사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ad the complete English version on OECD iLibrary !**

OECD/FAO (2012),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2*, OECD Publishing.

doi: 10.1787/agr\_outlook-2012-en